

랑세스, 독일 종합주가지수 DAX 편입



랑세스(Lanxess)는 9월24일부터 독일의 대표적인 종합주가지수인 DAX에 정식 편입된다고 9월13일 발표했다.

DAX 지수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 30사로 구성된다.

DAX 편입으로 랑세스는 2005년 1월 독일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한 이후 7년 만에 30개 대형 우량주식에 속하게 됐다.

랑세스는 2005년 바이엘(Bayer)에서 분사한 이후 자동차, 타이어, 건설, 전기, 제약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2011년 기준 88억유로(약 13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연서 기자>

<화학저널 2012/09/13>